

## 道詵과 그의 裨補思想

徐 閔 吉

### I

道詵國師는 新羅 末期頃의 高僧이었으나 그의 生涯나 思想 및 行狀을 알아 볼 만한 正確한 資料가 없다. 그리하여 그에 對한 자세한 것은 알 길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後代人들에 依하여 엮어진 몇몇 記錄에 依하면, 道詵國師는 裨補寺塔說을 主張하였고, 그것은 道詵國師로부터 始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裨補思想은 高麗 初期부터 風水圖讖思想으로 認識되어져, 李朝 末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 國民思想에 莫重한 影響을 끼쳤던 思想이다. 道詵國師의 裨補思想을 圖讖思想으로 理解하려는 態度는 現在에 와서도 계속되고 있어, 道詵國師 自身까지도 風水의 大家로 評價받고 있다.

中國 上古時代의 多神敎의 民間信仰에서 그 發生起源을 가진 圖讖思想은 新羅時代부터 우리 나라에 傳來되어 現代에 이르기까지 널리 盛行하고 있는 것은 事實이나, 道詵國師와 그의 裨補思想을 圖讖이라고 보는 見解는 잘못된 것 같다.

道詵國師는 禪僧이면서 時代的 思潮에 副應하여 密敎的 法用으로 提起한 것이 그의 裨補思想이었고, 그것은 同時에 道詵國師의 信仰과 退步해 가던 當時의 敎勢를 다시 復興시켜 보려는 復合的 目的性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道詵國師를 風水僧으로 보고, 또 그의 裨補思想을 圖讖思想으로 理解하려는 從來의 見解를 再吟味해 봄으로써, 道詵國師와 그의 裨補思想에 對한 올바른 觀點을 다시 定立시켜 보려는 데에 主眼點을 두려는 것이다.

## II

新羅 末期 道詵國師는 一般的으로 圖讖僧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하여 그는 風水地理의 大家요, 이 나라 圖讖思想의 鼻祖처럼 認識되어져 버렸다.

道詵國師에 對한 이러한 認識은, 원천적으로는 그의 思想과 行狀을 正確하게 傳하여 주는 文獻이 없었다는 점에 그 重要的 原因이 있다 하겠지만, 斷片的이고 不正確하나마 그의 行狀을 찾아 볼 수 있는 碑·傳記·實錄<sup>1)</sup> 등의 記錄에서, 道詵國師의 思想的 根幹이 마치 風水地理와 같은 圖讖思想에 있는 것처럼 強調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山川地理法을 唐나라의 一行法師에게서 直接的으로 修學하여 온 것처럼 傳하여 주고 있기 때문에, 自然히 道詵國師를 圖讖僧으로 보는 見解가 有力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高麗의 太祖는 “道詵이 占定한 穴外에 함부로 寺院을 建立한다면, 곧 地德이 損傷하여 祚業이 永久치 못할 것이다.”<sup>2)</sup>라고 遺訓을 내림으로써, 高麗에 있어서 道詵國師의 位置

1) “玉龍寺先覺國師證聖懸燈塔碑”(朝鮮金石德覽 上 pp. 560~562).

“月出山道碑寺道詵國師守眉大師碑銘”(朝鮮寺刹史料 上 pp. 339~344).

“高麗國師道詵傳”(朝鮮寺刹史料 下 pp. 377~379).

“道詵國師實錄”(朝鮮寺刹史料 上 pp. 202~209).

“白雲山內院寺事迹”(朝鮮寺刹史料 上 pp. 17~23).

“道詵國師傳”(藏外雜錄 第2輯 pp. 17~21).

“道詵國師實錄跋”(朝鮮寺刹史料 上 pp. 211~213).

2) “其二曰 諸寺院 道詵所占定外 妄加創造則損薄地德 祚業不永”(高麗史 世家 卷 2 太祖 26年 4月).

가 確固해졌음은 물론 圖讖僧으로서 道詵國師에 對한 觀點도 역시 既定事實化되어 버렸다. 그리하여 高麗 末 妙淸과 같은 僧侶는 一行→道詵→康靖和→妙淸→白壽翰<sup>3)</sup>과 같이 그 傳承體系까지 세워 道詵國師를 우리 나라 圖讖의 鼻祖로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위에서 밝힌 記錄들 以外에도 高麗史, 東史綱目, 東國輿地勝覽, 新增東國輿地勝覽, 宋高僧傳, 景德傳燈錄 等等 여러 參考文獻들의 곳곳에서 風水圖讖에 關한 한 道詵國師와 연결을 짓고 있어, 現代에 와서는 李丙燾, 忽滑谷快, 今西龍과 같은 大學者들<sup>4)</sup> 까지도 道詵國師를 圖讖僧으로 보는 見解를 그대로 받아 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道詵國師와 一行法師의 關係에 있어서 일찌기 李能和先生도 指摘하신 바와<sup>5)</sup> 같이 서로 一世紀의 年代差異가 있으니 맞지 않는 일이다. 또한 道詵國師를 우리 나라 圖讖의 鼻祖라고 하는 妙淸과 같은 見解도 잘못된 것이다. 왜냐 하면 道詵國師 以前에 이미 이 나라에는 圖讖思想이 들어 왔기 때문이다.<sup>6)</sup> 그 뿐 아니라 道詵國師는 그 思想의 基盤이나 信仰의 根本을 圖讖과 같은 風水地理에 두고 있었던 분도 아닌 것이다. 그의 信仰의 本質은 恒時 禪에 있었으나, 法統의 系譜와 學的 素養 그리고 時代的인 思潮에 副應하여 密敎的 法用을 活用함으로써, 한편으로는 護國思想·現世利益思想과 같은 時代的 潮流에 따랐고 다른 한편으로는 密敎의 信仰의 現實의 應用인 裨補寺塔의 神力에 依하여 沈滯된 敎勢를 다시 일으켜 法輪이 自轉하기를 祈願하였던 분이 道詵國師였다 할 것이

3) “自言此太一玉橫法 禪師道詵傳之康靖和 靖和傳之我 臨老得白壽翰傳之 非衆人所知也”(高麗史 列傳 卷40 妙淸).

4) 李丙燾 “高麗時代의 研究” pp. 1~58; 忽滑谷快 “朝鮮禪敎史” pp. 120~123; 今西龍 “高麗時代研究” pp. 63~114, 參照.

5) “高麗沙門宏演所撰 高麗國師道詵傳 以師爲得地理法 於唐一行禪師者 此乃誤說之 按唐沙門一行……開元十五年示寂 自是計至唐文宗 太和元年 道詵示生之歲爲百十年……”(李能和 “朝鮮佛敎通史” p. 270).

6) “於是專精學問 兼知地理 望場山下 瓠公宅以爲吉地 設詭計以取而居之 其地後爲月城”(三國史記 卷 I 脫解尼師今).

“道士等 行纘國有名山川 古平壤城勢新月城也 道士等 呪勅南河龍 加業爲滿月城 因名龍堰城 作讖曰龍堰堵……”(三國遺事 卷3 興法 第3 寶藏奉老傳).

다.

먼저 道詵師國의 法系를 살펴 보면, 그는 禪門九山中에 하나였던 桐裏山 開山祖 惠徹(哲)禪師의 直系 弟子였다.<sup>7)</sup> 그리하여 道詵國師는 惠徹禪師로부터 無說之說과 無法之法을 虛中授受한 후에도 坐定하여 禪旨 參究를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sup>8)</sup> 道詵國師가 비록 三韓 山川의 3,800 곳을 擇하여, 마치 사람에게 病이 들었을 때에 그 血脈을 찾아 침을 놓고 뜸을 떠서 病을 고치는 것처럼 山川(國土)에 病(內愚外患)이 들었을 때에는 그 落點處에다 寺院·塔·浮圖 등을 세워 山川의 病을 고칠 수 있는 禪補說<sup>9)</sup>을 主張은 하고 있지만, “절을 세우고 塔을 세워 얻어진 國家의 利益과 功德이 禪理의 精奧함에는 미치지 못한다.”<sup>10)</sup>고 스스로 말씀하신 뜻을 吟味해 본다면, 역시 道詵國師의 깊은 信仰의 根本은 禪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道詵國師를 禪僧으로 보고, 그의 信仰의 本質도 역시 禪理參究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道詵國師가 禪僧이라 할 때, 그는 어떠한 理由 때문에 禪僧이면서도 山川地理에 그토록 깊은 關心을 두어 禪補寺塔說을 主張하였던가 하는 問題가 있게 되고, 또 하나의 問題는 道詵國師는 寺塔을 세우되 地德의 損·益을 重要視하였고 그에 따른 靈驗도 尊重하였던 것으로 모든 記錄들이 傳하여 주고 있는 한 道詵國師를 圖讖僧으로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

道詵國師는 확실히 山川의 地德을 重要視하였고, 그에 따라서 禪補寺塔說을 내세웠던 것도 事實이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라 하여 그를

7) “于時惠徹大師 傳密印於西堂智藏禪師 開堂於桐裏山 遊方求益者多歸之 師乃樞衣禪門請爲弟子 大師嘉其聰敏接以至誠 凡所謂無說之說無法之法 虛中授受廓爾”(朝鮮金石總覽 上 p.560)라고 하였고, 忽潛谷快 “朝鮮禪教史” p.93에도 “惠哲門下에 道詵國師 如禪師 등이 있었다”라고 하였다.

8) “道岬仍坐禪 於斯三藏奧旨無不精通……宴坐忘言殆三十餘年”(朝鮮寺刹史料 上 p.207)

9) “三韓山水圖中 擇三千八百區 件件落點曰 人若有病急郎尋血脈 或針或灸則即病愈 山川之病亦然 今我落點處 或建寺立佛立塔立浮圖則 如人之鍼灸 名曰禪補也”(朝鮮寺刹史料 下 p.377).

10) “建寺立塔利益國家之功 至於禪學之精奧則弊不及焉”(朝鮮寺刹史料 上 p.202).

圖讖僧으로 보거나 禪補思想을 圖讖의 學說로 본다는 것은 잘못된 見解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 理由는 道詵國師가 禪宗의 系統이면서도 그는 密敎에 더 깊은 關心을 가졌던 분이요, 禪補를 主張한 思想的 根據도 圖讖學이 아니라 密敎의 法用에 依하였다고 보기 때문이다.

道詵國師는 그의 法系上으로 보아서 密敎信仰에 近接할 수 있는 充分한 機會가 있었던 것이다. 앞에서 道詵國師가 桐裏山 開山祖였던 惠徹禪師의 傳法弟子였음은 이미 밝혔거니와, 그의 스승인 惠徹禪師는 일찌기 唐나라에 들어가 西堂智藏을 事師하고 그로부터 密印을 傳授받았다.<sup>11)</sup> 그런데 惠徹禪師의 스승이었던 西堂智藏은 禪僧이면서도 오히려 密敎에 더 깊은 造詣가 있어 密敎僧으로 널리 알려진 분이다.<sup>12)</sup> 따라서 智藏·惠徹·道詵 等 三者의 法系的 關係性으로 보아 道詵國師도 역시 密敎信仰에 상당한 影響을 받았으리라고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觀點을 더욱 明瞭하게 하여 주는 것은, 道詵國師가 白雲山 等 가장 重要한 세 곳을 擇地하여 禪補寺院을 建立하고 다시 藥師如來像 三尊을 敬造하여 各各이 三所의 寺院에 모셨다는 事實인 것이다.<sup>13)</sup>

藥師如來에 對한 信仰은 물론 藥師經<sup>14)</sup>을 所依로 하여 시작된 것이다. 즉 藥師如來는 옛 菩薩行 時에 十二大願을 發하여 이를 成就한 뒤에는 日光·月光菩薩을 兩脇侍로 하고, 十二神將을 隨속으로 하며, 淨琉璃世界에서 一切衆生을 濟度할 때에 三難得을 解決케 하며, 諸難을 解脫케 하며 九橫死를 免하게 하는 것 等を 說하여 있다. 十二神將은 以後 藥師如來의 名號를 授持하거나 讀誦하는 者가 있으면 그를 擁護하여 一切의 苦難이 없게 하겠다는 것이 藥師經의 中心思想이다.

이러한 藥師信仰이 中國에 와서는 祈福消災의 要法<sup>15)</sup>으로 믿어졌고,

11) 東師列傳 第1 惠徹禪師傳 및 註 7) 參照.

12) 黃鐵華 “中國佛教史” p. 188 參照.

13) “敬造藥師如來三尊以安寺 時有瑞應九重休祥 上曰此豈佛道醫艾之力耶 白雲者非獨三處之中爲最 四山之中超出者也”(朝鮮寺刹史料 上 p. 19).

14) 新修大藏經 卷14 pp. 404~408.

15) 達摩笈多 “藥師如來本願功德經” 序文에서, “藥師如來本願功德經者 致福消災之要法也”(新修大藏經 卷14 p. 401)라고 하였다.

또한 그것은 完全히 密敎的인 信仰形態로 變容을 보게 되었다. 그리하여 支那 密敎의 巨星인 金剛智·善無畏三藏의 法을 傳해 받은 一行法師과 같은 分은 大日如來를 根本으로 하는 瑜伽密敎의 德相으로서 釋迦·藥師·彌陀·彌勒의 四佛과 文殊·普賢·觀音·勢至·金剛手·虛空藏·摩利支·地藏의 八大菩薩로 具現된 “藥師曼荼羅”를 作成하기까지 하였다<sup>16)</sup>. 中國에서 密敎的으로 變容된 藥師信仰은 新羅 時代부터 우리 나라에 傳來하여, 密本法師는 藥師經을 讀誦하여 善德女王의 病을 治癒하였고,<sup>17)</sup> 惠通法師는 唐 一行의 스승인 善無畏三藏에게서 密印을 傳受하였던 스님이며,<sup>18)</sup> 明朗스님이 彩帛으로 임시 跣을 짓고 縛로써 五方神將像을 만들어 瑜伽의 明僧 十二名으로 하여금 文豆婁道場을 開設하여 唐兵 五十萬을 물리친 일이 있는데,<sup>19)</sup> 이 때에 瑜伽明僧 十二人으로 했던 것도 결국은 藥師經의 十二大願과 十二神將思想에 依하여 취해진 方法이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藥師經思想과 그 密敎的 變容, 그리고 그것이 우리 나라에 傳來되어 國家的으로 應用된 모습 등을 살펴 보았을 때, 결국 道詵國師가 白雲山 等 세 곳에 跣을 짓고 藥師如來像을 모셨다는 것은 그의 信仰思想의 法用이 密敎에, 또는 密敎化된 藥師信仰에 根本을 두고 있다는 證據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道詵國師는 禪僧이면서 同時에 密敎僧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道詵國師와 一行法師가 年代的으로 約一世紀의 差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道詵國師가 一行法師에게서

16) 李喜秀 “土着化過程에서 본 韓國佛敎” p. 228 參照.

17) “善德王德曼疾彌留 有輿輪寺僧法揚 應詔侍疾 久而無効 時有密本法師 以德行聞於國 左右請代之 王詔迎入內 本在震仗外 讀藥師經 卷軸纒周 所持六環飛入寢內 刺一老狐與法揚 倒蹶庭下 王疾乃瘳”(三國遺事 卷5 神呪 第6 密本摧邪).

18) “便辯俗出家 易名惠通 往唐謁無畏三藏請業……深器之 傳印訣”(三國遺事 卷5 神呪 第6 惠通降龍), 朴泰華 “新羅時代의 密敎傳來考” pp. 9~14. (趙明基博士華甲記念 佛敎史學論叢)

19) “時唐之游兵……鍊兵五十萬 以薛邦爲帥欲伐新羅……近有明朗法師入龍宮 傳秘法而來 請詔問之 朗奏曰 狼山之南有神遊林 創四天王寺 於其地 開設道場則可矣……朗曰 以彩帛假構宜矣 乃以彩帛營寺 草構五方神像 以瑜伽明僧十二員 明朗爲上首 作文豆婁秘密之法 時唐羅兵未交接 風濤怒起 唐紅皆沒於水 後改初寺名 四天王寺”(三國遺事 卷2 文虎王法倣).

山水秘法을 直接 배워 왔다<sup>20)</sup>고 하는 意味는 一行法師에게서 圖讖學을 直接的으로 修學하였다는 뜻이 아니고, 傳法系統과 信仰思想의 形態로 보아 密敎的 信仰思想을 間接的으로 影響받았다는 뜻으로 보는 것이 온당한 見解라 할 것이다.

이처럼 道詵國師를 密敎僧으로 보는 한 그가 주장한 裨補思想도 또한 密敎的인 한 새로운 法用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서, 裨補寺塔信仰은 風水地理나 圖讖學에 依한 것이 아니고 密敎信仰의 法用에 따라서 道詵國師는 全國土를 하나의 曼荼羅로 보고 位置나 方位 또는 山川의 地勢에 따라 알맞은 곳을 擇하여 道場(寺·塔·佛·浮圖)을 開設하고 그 곳에서 諸佛菩薩에 祈願함으로써 本地佛인 大日如來와 埵跡인 諸菩薩의 加護를 얻어 個人的으로나 國家的으로나 모든 患難을 卽渡하고 福利를 增長시킬 수 있었던 法用이 곧 裨補의 本來的 思想이었다 할 것이다.

道詵國師로부터 出發한 裨補思想이 密敎의 法用으로 보려는 立場은 單純하게 앞에서 살펴 본 論理의 根據에 依해서 單은 결코 아니다. 元來 密敎에서는 曼荼羅를 세우고 道場을 開設할 때에는 반드시 그 方位와 條件을 살피고, 位置와 場所를 選定하는 擇地法<sup>21)</sup>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보는 見解를 可能케 해 주는 것이다. 하나의 작은 曼

20) “我東方良闕之功 雖出於師 而一行所傳之法 亦可謂妙矣”(朝鮮寺刹史料 上 p. 206).

“初道詵八唐學於一行禪師……道詵畫傳其妙求還本國”(朝鮮寺刹史料 下 p. 377).

“桐裏山祖師道詵 八唐得一行地理法而還”(高麗史 世系).

“一行囑道詵云 佛者大醫王也 以之治身則疾病消 以之治心則煩惱亡 以之山川土地則吉凶變爲吉利裨補……”(東師列傳 第1 道詵國師傳).

21) “應當爲彼善遍開示常念誦時 作法事處 諸山具花果者 清淨悅意池邊河邊 一切諸佛之所稱讚 或在寺內 或阿蘭若 或於山泉間 或有寂靜通處 淨洗浴處 離諸難處 離諸音響機關之處 或於意樂處 於彼應當念誦”(金剛頂瑜伽中略出念誦經 卷1; 新修藏經 卷18 p. 224).

“復次演說持誦眞言成就處所者 於住何方速得成就 佛所得道降四魔軍 如是之處最爲勝上 速得成就……或於名山多諸林木 復多果實泉水交流 如是之處說爲勝處 或於陽多諸花果 復有水流通……”(蘇悉地羯羅經 揀擇處所品 第6; 新修藏經 卷18, pp. 605~606).

“周邊有水速得成就 無水不吉……地具諸德周邊有樹近有流水 此地最勝……或於山頂……鵝雁遊戲側近之處 應作求財及除富貴諸吉祥成就曼荼羅 於高山上 或於山側 或於山谷 或於山峯 或於巖窟……”(毘呬耶經 卷上 揀擇地相品 第3; 新修藏經 卷18 p. 767).

“若欲建立曼荼羅時 金剛阿闍梨先擇其地 若山若野 其地若有種種果木 軟草花平坦可樂 或有清淨池沼澄潭泉流盈滿 諸佛稱讚可以建立曼荼羅場……”(守護國界主陀羅尼經 卷9; 陀羅尼功德軌儀品 第9; 新修藏經 卷19 p. 566).

茶羅를 作成하여 小道場을 開設할 때에는 問題가 간단하다. 그러나 全國土를 하나의 曼茶羅化시키고 全國土를 하나의 大道場으로 보는 한, 全國 山川地圖를 그려 놓고 道場開設의 場所에 標示(落點)하지 않으면 不可能한 일이었을 것이다.<sup>22)</sup>

密敎에서는 心內證한 敎理의 社會的인 應用으로서 儀軌와 道場을 대단히 重要視하고 있다. 그리하여 曼茶羅와 道場을 開設하여 諸佛菩薩과 埵跡諸神의 加護力을 받고 이에 따라 證驗된 加護神力에 依하여 人類社會와 國土人民의 모든 어려운 問題들을 祈願하는 바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密敎信仰의 國家的 應用과 事實의 活用이 곧 道說國師에 依하여 비롯한 裨補山川의 思想이라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高麗 太祖가 뒷날 사람들에게 遺囑하였던 十條의 訓要 가운데 道說占定の 寺塔處에 關한 記事<sup>23)</sup>의 內容도 圖識思想으로 볼 것이 아니라 密敎의 信仰思想에 主眼點을 두고 理解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太祖가 訓要중에서 굳이 道說國師를 登場시킨 意圖도, 물론 여러 가지 理由가 있겠지만<sup>24)</sup> 가장 重要的 것은 道說國師의 密敎的 護身·護國의 法用에 太祖 自身이 깊은 信仰과 關心을 갖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太祖는 建國初에 海賊이 來侵하여 괴롭히기 때문에 廣學·大緣 등의 두 密敎大德을 請하여 禳鎮作法으로써 海賊을 물리칠 수 있었던<sup>25)</sup> 만큼의 密敎에 對한 信仰과 關心을 갖고 있었던 王이다. 뿐만 아니라 太祖는 國家鎮護를 諸佛菩薩께 資助하기 위하여 都內에 十個大刹을 創建하였는데<sup>26)</sup> 그 중에서도 法王寺는 首刹이었다. 그런데 權近의 法王寺祖

22) “僧道說嘗住此山 畫天下地理”(新增東國輿地勝覽 卷40 求禮縣 山川).

23) 註 2) 參照.

24) 李丙熙 “高麗時代의 研究” pp. 28~59에서 太祖와 道說國師의 關係를 地緣·思想·學德·後見人 等の 견지에서 자세히 밝히고 있음으로 이를 參照할 것.

25) “我太祖創業之時 亦有海賊來擾 乃請安惠 朗融之裔 廣學大緣等二大德 作法禳鎮……廣學大緣三重昆季二人 皆投神印宗 以長興二年辛卯 隨太祖上京 隨駕梵修 賞其勞”(三國遺事 卷5 神呪 6 明朝神印).

26) 高麗史 世家 卷1 太祖 2年 3月條.



師堂記<sup>27)</sup>에 依하면 法王寺의 本尊佛이 毘盧遮那(Vairocana)임을 알 수 있다. 毘盧遮那佛은 密敎 胎藏界의 本尊佛으로써, 金剛界는 金剛頂經을 所依로 하고 金剛智·不空三藏이 그 系統이고, 胎藏界는 大日經을 所依로 하고 善無畏·一行이 이 系統이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생각할 때 太祖는 확실히 密敎的 信仰心도 깊었던 王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太祖는 在位 19年 12월에 現聖寺를 建立하고<sup>28)</sup> 이 절을 神印宗(密敎)의 根本道場으로 만들었던 것이다.<sup>29)</sup>

이러한 事實들에 비추어 볼 때 太祖의 佛敎信仰의 主眼은 密敎였다 할 것이다. 密敎중에서도 善無畏·一行·惠愷·道詵 등으로 이어진 胎藏界의 系統이었다고 본다. 그러므로 信仰思想의 內의 서로 一脈相通하였던 太祖와 道詵國師, 또는 그의 裨補思想이 內의 關係가 맺어 질 수 있었던 機緣이 서로 成熟하였고, 外的으로는 新羅佛敎 初期부터 싹트기 시작한 佛敎思想의 國家的 受容과 護國 및 現世利益思想이 密敎的 法用과 相互 混融하여, 道詵國師에 依하여 보다 發展的이고 具體的인 裨補山川信仰으로 表現되었다. 그리하여 一個 武將으로서 王位에 올랐던 太祖로서는 國民精神의 統一과 國基를 鞏固히 하고 王權의 無歎과 延長을 위한 政策的 意圖과 信仰의 充足을 위하여 이를 받아 들였던 것이다. 곧 國民의 利益과 國家의 安寧을 希求한 道詵國師의 密敎的 山川 裨補의 法用<sup>30)</sup>이 太祖의 三韓을 統一하여 強力한 高麗一國을 建設하려는 欲望과 願力이 相互結合하여 道詵國師의 裨補信仰은 크게 發展 盛行할 수 있었고, 또 太祖는 訓要중에서 道詵國師를 登場시켰던 것이다.

27) “豫往觀之 則突然而堂構矣 不數月 又往觀之 則煥然而丹雘矣 及三往觀之 則中揭毘盧文殊普賢會圖 新會者也 左右分掛華嚴諸祖遺像 修舊者也”(陽村集 卷14 記類).

28) “是歲 創廣興現聖彌勒內天王等寺 又創開泰寺於連山”(高麗史 世家 卷2 太祖 19年 12月).

29) “因茲爲神印宗祖……又太祖爲創現聖寺 爲一宗根抵焉”(三國遺事 卷5 神呪 第6 明朗神印).

30) “建叢林設禪院 造佛造塔幾至三千五百餘所 山川病瘠無不潛伏 民心和順盜賊潛消大匠適玄三韓之內混爲一家”(朝鮮寺刹史料 上 p. 19).

“意在利益民物 期使鞏固邦基”(朝鮮寺刹史料 上 p. 340).

“建寺立塔利益國家之功”(朝鮮寺刹史料 上 p. 202).

道詵國師의 裨補信仰이 널리 盛行할 수 있었고 國家的 受容과 國民思想化할 수 있었던 것은, 太祖와 道詵國師가 그 密敎의 信仰의 態度에 있어서 同一한 目的成就에 依하였다고 하겠으나, 外形의 立場에서 서로 노리는 바의 結果는 달리 보아야 한다. 즉 太祖로서는 裨補思想을 國家的으로 應用함으로써 不完全하였던 高麗 建國의 基盤을 더욱 굳건히 해보려는 뜻이었고, 道詵國師로서는 裨補思想을 國家化시켜 그 當時의 時代的 要請과 國民思潮의 흐름에 副應함으로써 新羅 末期부터 退步一路를 걸어온 敎勢를 다시 再興시켜 보려는 希望이었다 할 것이다. 그러하기에 道詵國師는 裨補의 法用에 依하여 “寺塔을 建立하게 되면 곧 天下가 太平하게 되고 天下가 太平하게 되면 곧 法輪이 自轉할 것이다.”<sup>31)</sup>고 강조하였을 것이다. 韓國의 佛敎信仰에서 보면, 完全한 護國은 正法修行에 依해서만 可能한 것이요, 正法護持는 또한 護國이 뒤 따라야 可能할 수 있었다. 따라서 道詵國師가 내 세운 密敎的 法用으로서 裨補思想은 敎勢 再興을 위하여 必然的인 方法이요, 護國을 위한 當然한 法用이었다 할 것이다. 道詵國師가 時代思潮의 흐름에 副應하여 密敎의 法用을 活用하였던 本來의 뜻이 이와 같았기 때문에 “玉龍寺王師道詵加封先覺國師敎書”<sup>32)</sup>에서 그는, “時代에 順應하여 태어나 佛祖의 遺風을 발휘하여 오직 宗教를 主張하였다.”고 敎書하였을 것이다. .

지금까지 살펴 본 바에 依하면, 道詵國師는 禪의 法系를 이은 密敎的 活動을 展開한 스님이며, 그의 山川裨補도 또한 全 國土를 하나의 曼荼羅로 본 正法守護의 大道場法이었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그러나 現在 道詵國師의 것으로 알려져 있는,

道詵密記 1 卷 1 冊

道詵秘訣記 1 卷 1 冊

三韓運氣秘錄 3 卷 1 冊

31) “西天佛醫之 於山川痛瘁之地 而缺者以寺補之 過者以佛抑之 走者以塔止之 背者以檀招之 賊者防之 爭者禁之 善者樹之 吉者揚之 則天下太平法輪自轉”(朝鮮寺刹史料 上 p. 19).

32) “玉龍寺王師道詵 應時出世 助順降衷 發揮佛祖之風 主張宗教”(東文選 卷27).

先覺國師撰書 2卷 1冊

道詵踏山歌 1冊

道詵秘記

玉龍集

道詵明堂記

三角山明堂記

玉龍子問答

道詵山水記

等の著述이 있어, 그 대부분이 明堂記, 秘訣記, 密記와 같이 風水地理와 關係있는 內容이거나 冊題들로 되어 있고, “玉龍寺先覺國師證聖慧燈塔碑”<sup>33)</sup>나 “道詵國師實錄”<sup>34)</sup>에서도 陰陽書 數篇이 傳하고 있다고 記錄되어 있으니, 道詵國師나 그의 裨補思想을 陰陽五行說이나 風水地理에 依한 圖讖思想으로 보는 것이 올바른 見解가 아니겠는가 하는 問題가 제기 된다.

그러나 앞의 두 塔碑와 實錄 자체가 撰述者 自身도 말하고 있듯이 不正確한 記錄일 뿐만 아니라, 그 內容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圖讖과 密敎를 區別하는 識見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陰陽說 數篇이라는 말은 그 뜻 자체가 맞지 않는 表現인 것이다. 또한 앞에 열거한 11種의 著述도 모두가 道詵國師의 것으로 보기에 어려운 것이다. 道詵國師의 것으로 알려진 11種의 著述이 대부분 現傳치 않고, 後代人들이 記述한 文獻중에서 그 書名만 引用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近代로 내려오면 을수록 道詵國師는 風水의 神僧처럼 偶像化되어 걸핏하면 “道詵記에云”, “道詵秘記에云”하고 風水地理에 關한 것이면 모두 道詵國師에게 갖다 붙이고 있다. 道詵國師로부터 始作된 密敎思想의 現實的 應用인 裨補信仰을 風水圖讖과 混同하여, 超人的 信仰의 加護力이나 密

33) “節所傳陰陽說數篇世多有 後之言地理者皆宗焉”(朝鮮金石總覽 上 p. 562).

34) “世傳節所著陰陽說數篇 謂之玉龍子秘訣”(朝鮮寺刹史料 上 p. 207).

敎의 神秘的인 形態는 모두 圖讖으로 생각하였고 이렇게 混同한 圖讖思想은 高麗와 朝鮮의 國民들 사이에 널리 盛行하여 高麗 中期 以後부터는 陰陽書의 偽造와 圖讖僧에 관한 갖가지 軼측까지 나오게 되었다.

그리하여 肅宗 6年에는 廣明寺의 僧侶였던 光器는 陰陽書를 偽造한 事實이 있었고,<sup>35)</sup> 睿宗은 陰陽地理書의 眞偽를 가릴 수가 없어 太史官에게 命하여 “海東秘錄”을 編撰케 하였으며,<sup>36)</sup> 나아가서는 이렇게 偽造된 秘記와 그 思想을 더욱 深化시키기 위하여 元曉·義湘·指空·無學까지도 모두 圖讖僧으로 造作하기 까지 하였다.<sup>37)</sup> 더욱이 義湘大師는 “義湘杜師秘傳”을, 無學大師는 “無學順字論”을 지었다<sup>38)</sup>고 하여, 이들을 모두 圖讖僧으로 만들어 버렸던 일도 있다. 따라서 道詵國師에 對하여 高麗 中葉 이후부터 後人들이 附會한 바가 많다고 보는 見解<sup>39)</sup>는 올바른 觀見이라 할 수 있고, 그의 11種이나 되는 著述도 道詵國師의 이름으로 假託된 것이 많으리라고 생각 되어진다. 그러므로 道詵國師 所傳의 陰陽說이 있다고 하여 그것을 事實 그대로 받아 들인다거나 그를 圖讖僧으로 斷定하는 것은 잘못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以上과 같이 道詵國師에 對하여 그 中心을 이루고 있는 信仰思想의 根底와 그가 내세운 裨補寺塔說의 思想的 背景 등을 살펴 봄으로써, 道詵國師는 一般的으로 認識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圖讖僧이 아니요, 禪의 法系를 이은 禪僧으로서 密敎의 活動을 展開한 高僧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가 처음으로 活用하여 國家化시킨 裨補思想 역시 密敎의 法用으로서 全國土를 하나의 曼荼羅의 道場으로 보고, 密敎의

35) 高麗史 世家 卷11 肅宗 6年 3月條 參照.

36) “王以陰陽地理之書 眞偽相亂 命儒臣……與太史官斷定 名曰海東秘錄”(東史綱目 2 睿宗 1年 3月).

37) “朝鮮寺刹史料” 上 p. 342.

“李朝各種文獻風俗關係資料撮要”(朝鮮總督府中樞院刊) p. 1074 參照.

38) “古鮮冊譜” 2冊 p. 486 上, 諸家秘說中 參照.

39) “李朝各種文獻風俗關係資料撮要”(朝鮮總督府中樞院刊) pp. 1331~1332 參照.

擇地法에 따라 場所를 選定하여 寺院이나 塔과 浮圖를 세우고, 그 곳에서 諸佛菩薩께 加護를 빌어 證驗된 그 神力에 依하여 國家와 國民을 守護하여 天下가 太平하기를 바랐고, 나아가서는 法輪이 常轉하기를 祈願하는 法用이 곧 裨補思想이었던 것이다.

道詵國師와 그의 裨補思想이 이와 같았기에 일찍이 “道詵國師實錄跋”을 쓴 明村 朴智叟도 그 跋文중에서 “師의 所造를 可히 알아, 어떤 사람이 헛되이 堪輿<sup>40)</sup>로써 볼 것이냐”<sup>41)</sup>라고 하여 道詵國師를 圖讖僧으로 보는 잘못된 見解를 지적하였으리라.

### III

지금까지 道詵國師는 圖讖風水僧으로 널리 認識되어져 있고, 그의 裨補思想도 또한 圖讖思想으로 理解되어 왔다.

그러나 道詵國師는 禪門九山の 하나인 桐裏山 開山祖 惠徹(哲)禪師의 傳法弟子였고, 그는 禪理參究를 조금치도 게을리 하지 않았던 高僧으로서 禪의 眞價를 佛敎의 어느 信仰思想보다 높게 평가하였던 분이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그는 훌륭한 禪僧이었다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그는 또한 密敎的 法用으로써 裨補寺塔信仰을 主張하여, 現實에 應用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道詵國師의 스승인 惠徹禪師가 西堂 智藏의 密印을 傳授받았고, 西堂智藏은 密敎의 스님이라는 것과, 道詵國師와 一行法師는 一世紀의 年差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연결을 맺을려하였던 뜻은, 一行法師는 善無畏의 弟子로서 胎藏界 系統의 密敎僧이면서 同時에 禪에 關心이 많았던 분이기며, 道詵國師는 一行의 이와 같은 信仰思想의 間接적 影響을 받았다는 意味로 보아지는 점, 또한

40) 漢書藝文志講疏 p. 27에 “堪輿金匱 14卷 師古曰 許慎云 堪天道與地道也”라고 하여, 곧 圖讖思想을 말한다.

41) “可知師之所造 何世之人 徒以堪輿目之耶 抑空門中了事 漢非儒家所推獎之”(朝鮮寺刹史料 上 p. 212).

道詵國師가 白雲山 等 禪補上 가장 중요한 세 곳을 擇하여 절을 세우고 그 곳에다 藥師如來像을 奉安하였는데, 藥師信仰이 中國에 와서는 密敎的으로 變容하여, 一行法師와 같은 분은 “藥師曼荼羅”까지 作成하였고 이렇게 密敎的으로 變容한 藥師信仰이 우리 나라 新羅時代부터 傳來하여 密本法師는 藥師經을 讀誦하여 善德女王의 病을 고쳤으며, 新羅의 惠通스님은 善無畏에게서 역시 密印을 배워왔던 점으로 보아 道詵國師가 藥師如來 三尊像을 모셨다는 것은 곧 密敎的으로 變容한 藥師信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高麗 太祖 또한 密敎信仰者였다는 점 等等으로 보아 알 수 있는 일이다.

또한 道詵國師의 著述로 알려진 11種의 書名이 傳해지고 있어 그를 圖讖僧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는 대부분이 後代人들에 依하여 假託되어진 것으로 신빙성이 희박한 것이다.

따라서 道詵國師는 禪僧이면서 同時에 密敎僧이요, 또한 그가 主張한 禪補思想도 密敎의 法用의 現實의 應用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太祖의 訓要十條에 담겨진 禪補寺塔도 결국 密敎的으로 理解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道詵國師가 主張한 禪補思想이 密敎的인 法用이라 하여, 圖讖과는 전혀 關係없이 發展하였거나 盛行하게 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韓國的 佛敎信仰의 形態가 그리하듯이, 禪補思想도 新羅時代부터 있어 왔던 山嶽崇拜信仰과 道敎의 影響을 강하게 받은 圖讖思想과의 密接한 關係性 속에서 發展할 수 있고 盛行할 수 있었던 助緣이 되었다는 점은 筆者도 否認하고 싶지는 않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原理的 立場에서 볼 때 道詵國師는 禪에 根本을 둔 密敎僧으로 보아야 하고, 그의 禪補思想 역시 密敎的 法用으로 보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